

加羅諸國의 사적 발전에 대하여*

譯 위가아**

-
- I. 시작하며-학설사풍으로
 - II. 한국 사료로 본 가라제국-첫 번째-삼국유사의 경우-
 - III. 한국 사료로 본 가라제국-두 번째-『삼국사기』의 경우-
 - IV. 『일본서기』로 본 가라제국
 - V. 남은 과제
-

I. 시작하며-학설사풍으로

加羅諸國이라고 하면 종래의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임나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김석형씨를 시작으로 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 임나문제는 바꿔 말하면 임나일본부의 문제로 파악되고 야마토(大和) 조정의 조선 침략 거점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본 고대사 연구의 일반적 사고방식이었던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래의 일본 고대사연구의 경향에서 보면 임나와 가라제국의 문제는 야마토 조정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 성하고

* 이 글은 기토 기요아키(鬼頭清明)의 1974년도 논문 「加羅諸國の史的發展について」(『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舎)를 번역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쇠퇴하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되어 온 것이고, 이들 임나와 가라제국의 자립적인, 혹은 주체적인 역사적 발전을 검토하려고 하는 자세가 거의 결여되어 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결점을 다소나마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신라와 백제 및 倭 내지 야마토 조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큰 세력에 포위된 가라제국은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립한 국가기구도 민족제도 결실을 보는 일 없이, 아무리 늦어도 7세기 초에는 역사의 물결의 그림자로 그 모습을 가라앉힌 것이지만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제국 자체에도 그 주체적인 한 계열의 역사적 발전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라제국의 역사적 발전의 법칙성과 그것에도 불구하고 중국적으로는 신라에 결집·포섭되지 않을 수 없었던 여러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과제와 그 기본적 목적은 서술한 대로인데, 이러한 과제의 유효성 및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도의 필요이기는 하지만 학술사적인 총괄을 서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후의 일본에서 임나 연구의 가장 고전적 위치를 점해 온 것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지은 『임나홍망사』(1949년 간행)²⁾이다. 이 저작은 말하자면 오늘날 일본에서의 임나문제에 대한 통설적 견해를 정립한 것으로 고전적 지위를 점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출발해야할 이후의 연구 기점이기도 하다. 또한 동시에 戰前부터의 임나문제에 대한 연구사는 스에마쓰씨의 저서 제1장에 논점이 명확하게 해설되고 또 요약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에마쓰씨의 저서를 하나의 고전적 업적으로서 확

-
- 1) 임나의 멸망은 가라제국 가운데 大伽耶와 안라 등이 신라에 병합된 562년에 두는 것이 통설이고 이 논문도 우선은 가라제국의 멸망을 그 시점에 두는 것이지만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의 『일본서기 조선 관계 기사 고증』 상권(174쪽)에 『삼국사기』가 전하는 포상팔국의 반란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는 3세기의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추고조의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설이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 2) [역자 주]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49. 저자가 인용한 논문의 서지 정보를 역자 주석으로 정리했다. 이하 동일.

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임나홍망사』를 극복·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과제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임나홍망사』의 특색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임나홍망사』의 특색과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 이 책의 제1장에서 저자 스스로가 『임나홍망사』의 주안점이라고 한 세 가지 관점이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주안점은 간 마사토모(管政友) 이래 잃어버린 임나를 주체로 한 관점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의 『고사기 및 일본서기의 연구』³⁾ 및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일본상대사의 일 연구』⁴⁾에 의해 행해진 문헌 사료의 부정적 비판을 좀 더 진행시키면서 긍정적 비판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세 번째 주안점은 입체적인 구성을 목표로 한 연구여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19쪽).

그런데 『임나홍망사』에서의 이들 세 가지 주안점은 그대로 『임나홍망사』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에 질문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 책은 임나를 주체로 하여 본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논문과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임나와 가라제국의 자립적 발전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혹시 그렇다고 해도 그 시점이 이 책의 내용에 관철되고 있는지 어떤지가 우선 문제일 것이다. 이 점에서 말하면 『임나홍망사』의 입장은 문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책이 임나 문제를 일본 고대 외교의 일부로 따로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나 문제 자체의 추이를 그대로 두고 정리해서 취급한 점은 정말로 간 마사토모의 입장이 부활한 것으로 획기적 의의를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임나와 가라 지방에서의 주체적 역사 발전의 자립성을 인정했는지의 여부는 또한 이것과 별개의 문제이며, 그 점에서는 이 책도 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임나 역사의 성립을 369년 일본의 조선 출병을 계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임나는 본래 일본에

3) [역자 주] 津田左右吉,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1924 ; 『日本古典の研究 上(津田左右吉全集1)』, 岩波書店, 1963.

4) [역자 주]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日鮮の交渉と日本書紀』, 近澤書店, 1947 ; (再刊),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대한 종속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것이다라고 하는 타율적이고 외인론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제2의 문헌사료에 대한 비판이 충분했는지의 여부에 결부되고 있다. 사료비판은 본래 그 문헌이 가지는 주장과 그것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의 비판을 빼고서는 행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긍정적 내지 부정적인 결론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임나홍망사』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료 비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말하면 임나의 성립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진출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이 책의 사고방식은 무엇보다도 『일본서기』의 사고방식과 주장인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일본서기』를 충분하게 비판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인 구성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의 소산으로 생겨난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의 논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문제에 입각해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시점이 임나와 가라 문제의 검토에 여전히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임나와 가라문제의 검토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한 것처럼 그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역사적 발전을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임나와 가라는 본래 일본의 대화조정에 지배되고 종속된 것에 의해 성립한 것이라고 하는 『일본서기』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따라 사료비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이러한 두 가지 시점을 설정한 것은 크게는 종래의 통설적 지위를 점하는 스에마쓰씨의 저작 가운데에서 읽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원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하에 서술하는 것과 같은 선행 학설로부터의 교시에 따른 바가 크다. 우선, 『임나홍망사』에 선행하는 쓰다와 이케우치 두 사람이 사료를 부정적으로 비판한 것은 여전히 한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 소

개된 김석형씨의 『고대조일관계사』(1970년 일본어로 번역⁵⁾)에서의 문제 제기 및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이 저술한 『임나일본부와 왜』(1973년 간행⁶⁾)에 보이는 것과 같은, 김석형씨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일본인 쪽의 하나의 대응과 임나 문제의 해명이라고 하는, 『임나홍망사』 이후 새로운 연구의 전개에 교시 받은 점에 의거한 바가 크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석형의 『고대조일관계사』에서 전개된 가라 및 가락 나아가 임나 일본부에 대한 견해는 그 외 고대 한일⁷⁾ 관계 전체에 걸치는 이 책의 주장과 함께 종래 일본의 연구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고대조일관계사』에서는 종래 일본의 연구를 그 시작부터 부정해서 일본의 연구자가 4세기 이후 야마토 조정이 한국⁸⁾의 남단에 진출해 있었다고 하는 전제를 한 번도 의심해 오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김석형씨의 주장은 이것을 역전시켜 한반도⁹⁾에 있던 신라·백제·가락 등등의 나라가 일본열도 내부에 식민지적인 종속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서기』에 보이는 이른바 임나는 기비(吉備) 지방의 가야군(加夜郡)에 있었다고 하고 있다(437쪽). 이 김석형씨의 견해는 『일본서기』가 주장하는 야마토 조정의 한국 진출론 및 그 거점인 임나론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러한 이상 『일본서기』의 천황 중심, 야마토 조정 중심의 사관을 정면으로부터 바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석형씨의 생각으로는 한반도에 있는 모국인 가락과는 별개의 일본열도 내의 백제계 종속 소국인 임

5) [역자 주] 金錫亨 著, 朝鮮史研究會 譯, 『古代朝日關係史-大和政權と任那-』, 勁草書房, 1969. 저자는 1970년에 번역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서지사항에 따르면 1969년에 번역본이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6) [역자 주]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1973.

7) [역자 주] 원문은 ‘朝日’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한일’로 번역하였다.

8) [역자 주] 원문은 ‘朝鮮’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한국’으로 번역하였다.

9) [역자 주] 원문은 ‘朝鮮半島’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한반도’로 번역하였다.

나라는 것이 있었고, 『일본서기』가 전하는 임나는 후자에 지나지 않으며 가락국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서기』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김석형씨의 이러한 정면으로부터의 비판은 우리들로서도 충분히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 생각에 따르면 『일본서기』가 전하는 임나와 가락은 별개의 지역의 것이라고 하는 김석형씨의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것으로 하고,¹⁰⁾ 여기서는, 김석형씨가 제기한 『일본서기』의 이데올로기 및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일본인 연구자에 대한 비판에서 배울 필요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해 두고 싶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견해는 최근 발표된 이노우에 히데오씨의 『임나일본부와 왜』(1973년 간행)이다. 이 저작은 임나 문제에서 일본인 쪽으로부터의 김석형 논문에 대한 유일한 전면적인 회답이다. 이 회답이 충분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이후 학계에서의 검토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 저작의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료 비판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서술한 스에마쓰 야스카즈씨의 『임나홍망사』가 사료 비판의 부정적 비판을 발전시키면서도 그 긍정적 비판을 서두른 나머지 『일본서기』의 사관을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노우에 히데오씨의 저서는 쓰다와 이케우치 두 사람이 사료를 비판한 원점으로까지 되돌아갔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려고 한 것에 우선 첫 번째 의의가 있다. 이노우에 히데오씨의 저서는 사료의 성격(어떠한 입장에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을 우선 확정하고 나서부터 사실을 구명하려고 하는 태도로 관철되어 있다. 이노우에 히데오씨가 이 책에서 명확하게 하려고 한 임나의 실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임나는 종래의 일본의 연구자가 설명해 온 것 같이 아마도 조정이 남조선으로 침략하는 거점이고 식민지적인 존재였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마도 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

10) 『일본서기』가 전하는 임나는 금관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관 내지 남가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가락국기」에 보이는 가락국이 금관국인 것, 『삼국사기』에 보이는 금관국과도 동일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않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110쪽). 또한 任那諸國은 아마도 조정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는 있지 않았고 각각 자립한 정치세력이었지만 신라·백제 등과의 외교상 중요한 문제는 공통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왕과 그 외에 의한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88쪽). 이 회의는 『百濟本記』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면 일본부집사와 임나집사로 구성되어 그것이 일본부의 내용이고 그 장관이 일본부경이었다. 물론 이 합의제에 기반한 조직이 임나제국 사이의 모든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각 임나제국의 자립성은 남아 있는 것처럼 이해된다. 세 번째로 이노우에 히데오씨의 견해에 따르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표현은 『백제본기』 편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부의 실태는 재지호족의 연합체였다고 하고 있다(92쪽)

이노우에씨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매우 참신한 시점에서 임나연구 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김석형과 이노우에 두 사람의 주장도 가라제국 자체의 역사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열도에서의 정치적 세력과 가라제국·임나제국이 가진 관계에 분석의 역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이 논문처럼 가라제국 자체의 역사적 발전을 주요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노우에씨의 저서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 「임나제국의 지리적 조건」은 임나·가라제국의 역사 발전을 생각하기 위해 생산의 여러 조건을 고찰한 것으로 주목해야할 것이다.¹¹⁾

이상과 같은 선행 학설을 길잡이로 해서 이 논문은 임나제국의 문명에 대해서 검토를 행하고 싶다. 그 검토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기반하여 진행하려 한다.

우선 처음으로는 이노우에의 논문이 역설한 것처럼 관련 사료의 양

11) 그 외에 가라제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로는 기타노 고헤이(北野耕平)의 「고고학으로 본 가야문화의 일고찰(考古學からみた加耶文化の一考察)」(『神戸商船大學紀要』)이 있다.

상과 그 사료가 기록된 입장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작업 이후에 가라제국의 동향을 생각해 보려 한다.

II. 한국 사료로 본 가라제국 - 첫 번째 - 삼국유사의 경우 -

임나·가라제국에 관한 사료는 크게 나누면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등의 한국 사료,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국 관계 사료 및 중국 사료의 3종류이다. 한국 사료에서는 『삼국사기』의 가라 관계 기사 및 『삼국유사』에 보이는 가라국기 등이 주목되고, 『일본서기』에서는 이른바 백제 3서라고 말해지는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記』가 중요하고, 그 외 『일본서기』가 전하는 임나 관계 기술은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이 없다. 중국 사료는 동이전 관계 기록에 가라, 변진 관계 기제가 약간 있는 것에 그친다.

이들 임나·가라제국에 관련된 사료 분석에 들어갈 것인데 우선은 한국 사료부터 검토를 시작하기로 한다. 어느 계통 사료로부터 검토를 시작하는가에 사료비판 상 특별한 내용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 종류의 사료는 그 성립의 이유와 전래의 계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료 검토를 상호 독립해서 출발시켜서 상호의 사료 비판이 서로 기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료를 다른 일본과 중국의 사료와 독립시켜 우선 검토하고 거기서 얻어진 사실과 추정을 추려낸 후에, 다시 그 사실과 추정에 구애되는 일 없이 다음의 사료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 수단을 취할 필요가 있다. 성격이 다른 복수 계통의 사료에 대해서 검토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방법이지만, 많은 경우 다른 성격의 사료를 ‘합리적’으로 조리를 맞추는 일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보이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 * *

한국 사료의 가라 관계 사료는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몇몇 「열전」에 보이는(김유신전 등) 것과,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와 왕력에 보이는 것이 있다. 「가락국기」는 『삼국유사』권2에 정리되어 있지만, 그 서두에 “駕洛國記 文廟朝 大康年間 金官知州事文人所撰 今略而載之”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遼의 大康 연간인 11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글 가운데 “大康二年丙辰凡八百七十八年所封 美土, 不騫不崩”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부터 대강 2년(1076)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락국기」는 金官國의 기원, 특히 首露王 즉위의 유래에 대한 설화를 첫째 단락으로 서술하고, 이어서 수로왕의 사적을 둘째 단락으로 서술하고, 다시 왕묘의 보호와 유지에 대한 관련사실이 셋째 단락에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로왕에서 이어지는 가락국의 역대 왕력이 기록되어 있다. 전반의 수로왕과 그 묘에 관계된 부분은 아마도 왕묘에 관한 무언가의 원사료에 기반했다고 생각되지만, 마지막의 가락국왕 9대에 관한 기술에서는 왕묘 자체에 대해 불가결한 전승과 설화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금관국의 왕대기와 같은 무언가의 기록을 기본으로 해서 「가락국기」에 채용된 것 같다. 무라카미 요시오(村上四男)의 「금관국의 세계와 졸지공(솔우공)」(『조선학보』 제21·22합병호)¹²⁾에 따르면 「가락국기」의 원문은 1076년(대강 2년)에 김해의 지주사인 金良鑑이 금관국의 시조 및 왕후의 능원을 정돈해 제사를 준비한 사정을 김량감 스스로가 기록한 비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 논문도 무라카미의 주장에 따르지만 후반의 왕대기 부분이 비문에 있었던 것인지, 『삼국유사』에 「가락국기」로 채용될 즈음 또는 「가락국기」로 정리될 즈음에 추가된 것인지의 여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다. 어찌되었든 수로왕과 수로왕 묘에 관한 전반 부분이 주요한 내용인 만큼 문장상의 윤색도 많고 원사료 전승과 설화의 원형이 쉽

12) [역자 주] 村上四男, 「金官國の世界と卒支公(率友公)」, 『朝鮮學報』 21·22, 1961.

게 잃어버려지는 것에 반해, 후한의 왕대기는 비교적 원사료를 잘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이 왕대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이 왕대기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료로 『삼국유사』의 왕력 부분이 있다. 거기에다 가락국의 왕력이 3국의 그것과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 「가락국기」와 비교·검토할 수 있다. 이 가락국의 왕력과 「가락국기」의 기재된 왕대기와의 비교·검토는 이미 앞에서 든 무라카미 요시오씨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세한 점은 무라카미의 논문에 양보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사료의 계통을 생각하는 것까지만 필요한 것을 서술해 두고 싶다. 우선 「가락국기」와 왕력의 사이에는 다소 다른 전승도 있지만 왕이 다스린 햇수 등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아마도 같은 계통의 사료로 생각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락국기」 쪽이 상세하고 왕력 쪽이 간단하지만 양자 모두 『開皇曆』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원사료가 『개황력』을 인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락국기」 왕대기의 말미는

仇衡王

金氏，正光二年卽位，治四十二年，保定二年壬午九月，新羅第二十四君眞興王，興兵薄伐，王使親軍卒，彼衆我寡，不堪對戰也，仍遣同氣脫知爾叱今留在於國，王子上孫卒支公等降入新羅（중략）開皇錄去梁中大通四年壬子降于新羅。

議曰案三國史，仇衡以梁中大涌四年壬子納土投羅則計自首露初卽位東漢建武十八年壬寅 至仇衡末壬子得四百九十年矣，若以此記考之，納土在元魏保定二年壬午，則更三十年，總五百二十年矣今兩存之。

라고 적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왕력 쪽은 『개황력』이 말하는 中大通 4년설을 그대로 채용하고 保定 2년설은 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가락국기」 쪽이 소재로 한 원사료 수가 왕력보다도 많아서 왕력이 채용한 것 이외의 사료에서 仇衡王의 신라 항복 연차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삼국사』도 『개황력』과 같은 연차를 채용하고 있어서 가락국의 왕대기로는 중대통 4년(532) 쪽이 원형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락국기」 왕대기의 기본이 된 원래의 왕대기에서는 중대통 4년에 금관이 항복했다는 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가락국기」의 鉗知王 崩年도 北魏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봉년과 즉위 연호는 남조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 서두의 왕력도 남조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락국기」의 왕대기나 『삼국유사』 왕력의 기본이 된 원사료가 된 왕대기에는 원래 남조의 연호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보정 2년 임자의 신라에 대한 항복 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분이 훗날 북위(북조)의 연호로 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개작이 있을 때는 508년에 신라가 북위에 입공하고 있는 것 등이 염두에 두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이상의 검토에 큰 잘못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가락국기」 및 왕력의 소재가 된 원래의 왕대기는 아마도 『개황력(록)』과 같은 계통인¹³⁾ 남조의 연호를 사용한 옛 기록이었다. 「가락국기」나 왕력은 『삼국유사』 편찬 당시에 조작된 가공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락국기」의 왕대기가 그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것처럼 후대의 가필에 따른 부분적 조작이 있고, 또 원래의 왕대기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기재에도 수로왕의 즉위 연대 등은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¹⁴⁾

13) 무라카미 요시오의 「금관국의 세계와 줄지공(술우공)」(『조선학보』 21·22 합병호)에서는 기초로 삼은 신라의 연표가 겹지왕의 봉년부터 북위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508년에 신라가 북위에 들어가 조공한 결과 북위의 연호를 신라에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삼국사』나 『삼국유사』의 왕력이 남조의 연호로 일관하고 있는(왕력은 北周부터 북조의 연호로 바뀐다) 것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4) 수로왕에 대해서는 이병도의 「수로왕고」(우리말 번역은 『조선연구연보』 5호에 수록) 및 『한국사』 고대편의 원시신라와 가라 등 참조.

이상과 같은 「가락국기」나 왕력의 기술로부터 우리들은 가라제국에 대해서 어느 만큼을 보고 알 수 있을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원래의 왕대기에서 금관국의 신라 항복 전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금관국왕 9대에 대해서도 어느 왕대부터 신뢰할 수 있는가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가락국기」의 기재에서 금관국의 역사적인 발전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원래의 왕대기 말미의 구형왕대를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형왕대에 해당하는 6세기 전반 금관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다소의 추론이 가능할 것 같으므로 그 점을 다음에 기술해 보고 싶다.

그 단서를 전해 주는 것은 「가락국기」 왕대기에 보이는 왕비의 아버지에 관한 기사이다. 이 왕의 장인에 대해서는 신분 표시가 별표(1)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표에 보이는 角干, 大阿干 등의 신분 표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금관국은 4·5세기부터 신라의 신분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된다. 그러나 宗主監, 泉府卿, 司農卿이라고 하는 표기가 새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대기의 오래된 부분에 보이는 것은 이들 신분 표시 자체에는 새로운 사료에 기반한 윤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이나 아간도 윤색인 것은 「가락국기」의 왕대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형왕 부분에 보이는 왕의 장인이 分叱水丞叱이어서 신라의 신분 표시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도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락국기」에 보이는 신라의 신분 표시는 전부 전혀 근거가 없는 조작인 것일까. 「가락국기」가 신라의 신분을 기술한 것이 수로왕의 사적을 서술한 전반 부분에서 “取雞林職儀 置角干 阿叱干 綴干之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로왕 때부터 신라의 신분제를 채용했다고 하는 후대의 설화에 이끌려 원래의 왕대기에 각각 등의 신분을 가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의 신분제를 언제 금관국이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신라에 금관국이 항복한 532년 이후의 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이유는 금관국왕 구형왕의 장인과 항복에 즈음해서 구형왕이 신라에 파견한 사자인 구형왕의 형제 脫知爾叱今은 「가락국기」의 기술에 따르

면 신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삼국사기』 법흥왕 19년에는 金仇亥(구형왕)의 항복 이후에 아들인 武力이 각간이 된¹⁵⁾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의 두 가지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에 항복하기 이전에 금관국은 어떠한 정치적 신분 질서도 가지지 못한 것일까, 나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락국기」가 전하는 왕의 장인의 신분은 각간, 대아간, 沙干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 신분적 상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락국기」나 그 원사료의 기술자는 완전히 아무런 근거 없이 신라의 신분 제도를 덧붙인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신라에 항복한 이후 금관국 내의 지배층은 신라의 신분 체제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되며 금관국 출신의 씨족이 가지고 있던 신라의 신분 질서를 신라 항복 이전으로 소급하여 개작한 것이 「가락국기」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관국의 지배층은 신라에 항복할 때에 이미 신라의 신분 질서와 정치적 위계(hierarchy)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계층 분해를 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신라에 항복할 때 금관국이 독자의 신분 제도를 확립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가락국기」의 기재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별 표(1)

왕	왕비	장인
首露王	許皇后	
居登王	慕貞	泉府卿申輔
麻品王	奶仇	宗正監趙匡孫
居叱彌王	阿志	阿躬阿干
伊尸品王	貞信	司農卿克忠
坐知王	福壽	道寧大阿干
吹希王	仁德	進思角干
銓知王	邦媛	金相沙干
鉗知王	淑	出忠角干
仇衡王	桂花	分叱水余叱

15) 『삼국사기』 법흥왕 19년 조에는 “金官國主金仇亥(중략)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以本國爲食邑武力仕角干”이라고 적혀 있다.

Ⅲ. 한국 사료로 본 가라제국 - 두 번째 - 『삼국사기』의 경우 -

앞 절에서 본 것처럼 6세기 전반의 금관국은 「가락국기」의 기재로부터 추론하면 그 내부에 정치적 신분 제도를 초보적으로 성립시키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검토의 대상을 바꿔 다른 한국 사료를 취급해 보기로 한다. 정리된 사료로는 『삼국사기』의 기재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加耶·加良·金官 등에 대한 기재가 있는데,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별표(2)와 같다. 「신라본기」에서는 『삼국유사』와는 다르게 금관국만을 기술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사료(14)의 浦上八國(奈解王 14년), 사료(26)의 加良(眞興王 15년), 사료(25)의 加耶(진흥왕 12년), 사료(28)의 加耶(진흥왕 23년) 등은 금관국이 아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서는 가라제국 전체의 동향을 생각할 수 있고 금관국 하나만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료에 나타나는 한에서는 가라제국 각각의 내부 사정이나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주 일반적인 정황 외에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가라 관계 기술은 이미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의 『일본서기 조선 관계 기사 고증』¹⁶⁾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연대의 게시 방식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원 1세기부터 3세기에 상당하는 연대를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6세기 이후의 연대에 상당하는 기술이다. 이 가운데 전자는 그 연대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며 수로왕에 관한 것이나 于老 전승 등은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기술이다. 따라서 가라제국에 대해 연대도 포함해서 다소라도 신뢰성을 가진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6세기 초두이다. 게다가 6세기 대에 들어가면 「신라본기」에서 왜와 관계된 기사가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 든 미시나

16) [역자 주]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上, 吉川弘文館, 1962.

의 책에서는¹⁷⁾ 왜의 한반도로부터의 후퇴와 가라제국의 자립화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6세기대의 가라 관계 사료가 기술하는 중심은 法興王 9년(522) 가야국 청혼의 기술(사료21) 범흥왕 19년(532) 금관국이 신라에 항복한 것(사료24), 진흥왕 23년(562) 大伽耶의 신라에 의한 정복 등(사료28)이지만, 이 가운데 금관국 항복의 연차나 그 사실은 「가락국기」에 인용된 『삼국사』나 『개황(력)』 등의 옛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우선 틀림없을 것 같고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비교적 신뢰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라제국에 대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6세기 초두부터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기사는 가라제국이 자립한 사료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라와의 접촉 과정에서 신라에 종속·지배되어 가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신라에 대한 종속 과정을 좀 더 검토해보자.

우선 사료(18)에서 (29)에 이르는 사료에 보이는 가라제국이 각각 어떠한 나라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금관국(사료24)을 제외하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것은 없다. 사료(28)에서 이사부에 의해 멸망당한 가야는 고령의 大伽耶라고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든 무라카미 요시오의 논문도 그러하다. 근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釋利貞傳」에 따르면 大伽耶와 금관국은 건국연대가 같은 것, 또 『삼국사기』 「지리지」의 강주, 고령군조에 大伽耶의 멸망 연차를 건국으로부터 520년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 것의 두 가지를 아울러 생각하는 것에 의해 大伽耶의 멸망이 562년으로 추정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서기』의 欽明 23년에는

17) 미시나씨의 견해에서는 5세기에는 왜=야마토 조정이 한반도에 입국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 역사상이 전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노우에 히데오의 『임나일본부와 왜』 및 『고대조선』에 보이는 것처럼 왜=야마토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미시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와 가라와의 관련도 종래 말해져 온 것처럼 왜의 가라제국에 대한 일방적 지배라고 하는 주장은 단순하게는 성립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嗟國 子他國散
半下國乞浪國稔禮國合十國]

라고 적혀 있다. 만약 이 기사를 신뢰한다고 하면 고령에 있던 大伽耶=加耶¹⁸⁾ 이외에도 많은 가라제국이 大伽耶와 함께 신라에 멸망한 것이 되어 『삼국사기』 진흥왕 23년의 가야가 大伽耶뿐이라고는 잘라 말할 수 없다. 어쩌면 가라제국의 여러 국을 합쳐 칭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562년에 가야가 배반했다고 「신라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532년의 금관국 신라 항복 후에도 가라제국의 일부는 신라에 대립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사료(26)에 따르면 금관국왕인 김구해의 아들 무력이 백제·가랑군과 전투하고 있어 신라에 항복한 금관국과 백제와 결탁한 가라제국과의 항쟁이 보인다. 따라서 6세기 초두의 가라제국은 신라 쪽과 백제 쪽으로 분열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562년에 신라가 가라제국을 일단 평정하는 것으로 결착이 지어지지만, 그 사이의 동향은 금관국에 대해서 「가락국기」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 신분제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면서도 백제와 신라의 항쟁 사이에 끼어 가라제국 전체는 물론 하나 하나의 국도 안정된 정치적 자립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료(21)이나 (22)의 가야에 대해서는 가라제국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다. 법흥왕 9년(사료21) 가야국왕의 청혼 이야기는 『일본서기』 繼體天皇 23년 是月 조에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이라고 하는 어구가 있다. 양자의 기사 배후에 공통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일본서기』의 가라왕은 大伽耶의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¹⁹⁾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법흥왕 9년의 가야는 大伽耶라고 하는 것이 된다.

법흥왕 9년의 가야가 大伽耶라고 하는 이상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18) 가라가 고령의 대가야를 가리키는 것은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홍망사』 제3장 임나의 성립(46쪽) 등을 참조.

19) 암과고전문학대계 『일본서기』 계체 23년 3월 是月 조의 頭注.

하면 大伽耶는 562년에 멸망하기 이전에는 신라와도 우호 관계를 굳건히 하려고 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법흥왕 9년에 이어서 11년의 가야국에 대해서도 법흥왕의 “巡南境拓地”를 금관국 부근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음인 진흥왕의 척경비가 창녕에 있는 것을 생각해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가야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해 大伽耶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大伽耶 자체도 백제 일변도로 되고 있을 리는 없이 신라와 교섭을 가지고 있는 것은 大伽耶를 시작으로 하는 가라제국이 백제와 신라 쌍방으로부터의 압박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내부에 정치사회로의 맹아를 포함해 가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자립하려고 하는 지향성을 간직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전술한 것처럼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만 가라제국이 백제와 신라에 대항하는 동시에 교섭하면서 정치적 자립을 지향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면 사료(25)의 가야국 嘉悉王에 대해서도 약간의 고찰을 미루어 시도할 수 있다.

가실왕에 대해서는 옛적에 쓰다 소키치의 주장이 있어(『임나강역고』 『조선역사지리』 제1권)²⁰⁾ 그를 금관국의 국왕이라고 하고 또 『남제서』에 보이는 荷知王(『남제서』 東南夷傳 建元 원년 조)과 동일 인물이라고 했다. 또한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홍망사』에서는 가실왕은 금관국의 왕이 아니라 다른 가라제국 가운데 한 나라의 국왕일 것이라고 했다. 앞에서 든 무라카미의 논문은 금관국왕 가운데 吹希王으로 생각하고 있다. 쓰다설은 「신라본기」의 가야를 전부 김해 금관국의 왕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오류임은 사료(27)의 예로부터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제가 없다면 쓰다설은 그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라카미설의 취희왕설은 취희왕을 「가락국기」가 “一云叱嘉”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따르고 나아가 이것을 嘉叱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음이 통하는 것을 가지고 동일 인물이라고 해서 荷知王=嘉

20) [역자 주] 津田左右吉,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地理』 第1卷(歷史調查報告 第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悉王=吹希王설을 설파하고 있지만 사료의 오류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쓰에마쓰설의 가실왕을 금관국 이외의 국, 따라서 하지왕을 음이 통하는 것에서 가실왕과 동일인물로 보고 이것도 금관국 이외의 국왕이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 가실왕이 있던 가야가 가라제국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사료적으로는 확정할 결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가실왕이 하지왕과 동일 인물이라고 할 때 『남제서』 동남이전의 가라 조에는 건원 원년에 하지왕이 來獻하자 보국장군의 책봉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왜의 武王도 조공해서 책봉을 받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²¹⁾ 이 『남제서』의 하지왕이 만약 왜의 무왕과 함께 남조에 조공해서 책봉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상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즉 가실왕의 가야는 왜와 연락을 하고 있어서 왜를 통해 남제에 조공한 것은 아닐까. 만약 이 상정을 더욱 진행시킬 수 있다면,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 보이는 日本府는 후술하는 것처럼 倭府인데, 이 왜부는 『일본서기』에 따르는 이상 안라에 두어져 있으므로(『일본서기』 흠명 2년 7월 등) 안라와 왜의 이러한 관계로 보면 가실왕은 안라국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논술이 얼마간 추론을 너무 거듭한 것 같지만 가실왕=하지왕으로 보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왜와의 연락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책봉을 받은 것으로 가실왕의 나라(안라인가)가 남제로부터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의해 백제와 신라 및 다른 가라제국에 대해 자립하여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많지 않은 한국 사료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금관국에 보이는 것처럼 6세기 초두에 각각의 가라제국에서는 정치적 신분

21) 『남제서』 동남이전에는 “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이라고 적혀 있고, 같은 책 왜국 조에는 “建元元年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爲鎮東大將軍”이라고 적혀 있어서 같은 해에 양자가 남제에 조공하여 책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초보적이기는 해도 형성되는 중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점과, 가라제국은 신라와 백제의 항쟁에 휘말려 가라제국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정치적 결집을 보이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하나의 국들에 대해서 말하면 백제와 신라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각각의 국가가 자립과 안전을 획득했을 법한 동향이 보이는 점이다. 상술한 가라제국의 주체적 발전은 한국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본 것이다. 이제 시점을 바꿔 일본 사료에서 보면 어떠할까. 다음은 이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

별표(2) 「신라본기」의 가야 관계 사료

1	AD 77	脫解 21	阿滄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滄賞功
2	87	婆娑 8	下令曰朕以不德有此國家 西隣百濟南接加耶 德不能綏威不足畏 (中略) 以待侵軼是月築加召馬頭二城
3	94	15	加耶賊圍馬頭城遣阿滄吉元
4	96	17	加耶人襲南鄙遣加城主長世拒之
5	97	18	舉兵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
6	102	23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於是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滄爲主 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陁鄒不送 王怒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7	104	25	悉直叛 兵討平之
8	106	27	幸押督 命馬頭城主伐加耶
9	108	29	遣兵伐北只國 多伐國草八國并之
10	115	祇摩 4	加耶寇南邊 親征加耶帥步騎 度黃山河 (下略)
11	116	5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加耶嬰城固守
12	146	逸聖 13	押督叛 發兵討平之

13	201	奈解 6	加耶國請和
14	209	14	浦上八國謀侵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滄利音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 (下略)
15	212	17	加耶送王子爲質
16	231	助賁 2	以伊滄于老爲大將軍 討破甘文國以其地爲郡
17	236	7	骨伐國王阿音夫率衆來降 賜第宅田莊安之以其地爲郡
18	496	炤知 18	加耶國送白雉
19	504	智証 5	築波里彌實珍德骨火等十二城
20	514	15	置小京於阿尸村
21	522	法興 9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
22	524	11	王出巡南境拓地加耶國王來會
23	525	12	以大阿滄伊登 爲沙伐州軍主
24	532	19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長曰奴宗仲曰武德季曰武力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25	548	眞興 12	先是加耶國嘉悉王製十二弦琴
26	551	15	修築明活城 百濟王明禰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于于德伊滄耽知等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 及交戰 (中略) 殺百濟王
27	552	16	置完山州於比斯伐
28	562	23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領五千騎先馳 入梅檀門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一時盡降 論功斯多含爲最 王賞以良田 (下略)
29	565	26	廢完山州 置大耶州

IV. 『일본서기』로 본 가라제국

전술한 두 개의 절에서는 각각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두 가지 한국 사료에서 몇 개인가의 추론을 시도했다. 이 절에서는 한국 사료와는 일단 별개의 전래 계보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일본서기』를 검토하여 한국 사료를 통한 추정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싶다.

『일본서기』에서 임나·가라제국에 대한 기본 사료가 「繼體紀」와 「欽明紀」에 인용되어 있는 『백제본기』인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따라서 이 절의 검토 대상도 주로 『백제본기』에 둘 것이다.

『백제본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의 업적이 있으므로 그것을 계승하는 것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²²⁾ 여기서는 필요한 한에서는 선학의 업적을 길잡이로 삼아 『백제본기』의 검토에 들어가려고 한다. 「계체기」와 「흠명기」에서 대외 관계 기사를 뽑아 개략적으로 기술하여 연표 방식의 표로 정리하면 별표(3)과 같다. 이 일련의 기사는 『백제본기』에 관련된 시기에 대해서만 열거한 것이다. 「흠명기」에는 흠명 23년 정월 이후에도 대외관계에 대한 사료가 여전히 보이지만 그들은 『백제본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임나·가라제국의 동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생략한다. 이 일련의 기사에 대해 이노우에 히데오는 『임나일본부와 왜』(68쪽)에서 구성 부분을 계체기, 「흠명기」의 전반 부분, 「흠명기」의 후반 부분의 셋으로 나누었다. 이노우에의 주장은 『백제본기』를 오리지널(original)한 사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인가의 원사료를 편집한 것이고 글자의 사용법은 원사료의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술한 『백제본기』의 세 가지 각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원사

22) 이전의 논고로 쓰다 소키치의 「백제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재(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津田左右吉 全集』 2권) 미시나 쇼에이의 『일본서기 조선 관계 기사 고증』 상권, 이노우에 히데오의 『임나일본부와 왜』 등등이 있다.

료를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첫 번째로 「계체기」의 그것은 B 유형의 기사이다. 己汶과 帶沙 할양 문제에 관한 것이 명확하게 『백제본기』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별표(3)에 든 A 유형, D 유형, E 유형 등의 『일본서기』 기술은 『백제본기』를 참고로 하고 있지 않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백제본기』의 기사를 거의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서기』의 편자가 손을 댄 것이므로 『백제본기』의 본문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노우에의 주장과 같이 B 유형으로 한정해 두는 것이 좋다. 덧붙여 나의 의견을 더해두면 A 유형은 大伴金村의 실정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료를 참고한 것, D 유형은 近江毛野의 이야기에 磐井 반란의 전승 및 한국 사료를 혼합한 것, E 유형은 한국 사료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제본기』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라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계체기」의 대외 관계 기사가 여러 종의 사료가 섞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흙명기」는 거의 『백제본기』에 기반한 것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별표(3)에서는 G 유형이라고 한 것이다. 이노우에의 주장은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흙명 2년부터 5년까지를 전반 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반 부분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전반 부분은 임나에 대한 신라의 침략을 백제가 가라제국과 함께 격퇴하려고 한 기사로 비교적 『백제본기』의 원사료가 『일본서기』의 기술에 잘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흙명기」의 후반 부분은 고구려²³⁾와 신라와의 공격에 대해서 백제왕이 야마토 정권에 구원군 파견을 신청해 온 기술이라고 하고 전반 부분에 비교할 때 후반 부분은 글자 사용법의 혼란이나 일본쪽 사료와의 혼합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노우에의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것을 말하면 그것은 임나의 구조나 정세에 대한 것이므로 이노우에씨가 지적하신 「흙명기」의 전반 부분에 주목해도 좋겠다.

23) [역자 주] 원문은 ‘高麗’이다. 이하 같은 단어는 모두 ‘고구려’로 수정하였다.

앞서 「가락국기」에서 검토를 시도한 금관국에서 정치적 신분 제도가 초보적으로 성립했다는 추정과의 관련에서 문제를 제기하자면 가라제국에서는 금관국 이외의 나라에서 어떠한 신분제가 존재한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우선 주의된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도 이노우에씨는 앞의 책에서(73쪽) 임나제국에 계층 분화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노우에씨가 그 전거로 든 것은 다음의 두 사료이다.

[A] 欽明 二年 四月

安羅次早岐夷吞奚, 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早岐, 散半奚早岐兒, 多羅下早岐夷他, 斯二岐早岐兒 子他早岐等任那日本府吉備臣 闕名字 往赴百濟俱聽詔書.

[B] 欽明 五年 十一月

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 宜來聽勅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早岐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早岐假赴百濟.

이 두 개의 사료에서 任那早岐 등의 신분 표시와 인명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B] 의 사료에서 일부 [A] 에 보이는 早岐를 君이라고 바꿔 쓰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서기』의 편자가 부분적으로 바꿔 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 에 보이는 多羅訖乾智는 『일본서기』 新訂增補國史大系本에서는 「通證」의 설을 실어서 二首位를 上首位의 오기인가라고 하고 있지만 加羅上首位古殿奚의 예에 보이는 것처럼 상수위라고 하는 신분에 버금가는 이수위라고 하는 것으로 오기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료 표현상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해서 [A] 와 [B] 로부터 가라제국의 신분제를 복원해 보면 별표(4)와 같다. 별표(4)를 보면 안라부터는 次早岐가 백제에 소집되고 있다. 이를 보면 차한기 위에 上早岐 내지 한기가 존재했다고 생각되며 다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한기와 하한기로 나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라는 흠명 2년에는 下早岐夷他를, 흠명 5년에는 二首位訖乾智를 백제에 파

견하고 있는데 아마도 같은 신분인 사람을 파견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수위와 하한기는 같은 신분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라도 상수위의 신분을 가진 고전해가 백체에 두 번 소환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한기가 두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의 卒麻, 子他, 斯二岐 등은 한기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적인 분해가 생겨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생각된다고 하면 『백제본기』에서 추출되는 가라제국의 신분제는 안라, 가라, 다라에서 한기층이 상하 둘로 분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노우에씨의 주장도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사료의 세부로 넘어가면 다소 다른 점도 있으므로 논증과정을 약간 세밀하게 서술했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임나·가라제국에서 신분제가 초보적으로 성립한 것은 「가락국기」에서 추출된 금관국에서 정치적 신분제가 초보적으로 성립한 것과 부합한다. 가라제국이 그 일부이기는 하지만 신분제 전개로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던 것, 따라서 정치사회로 이행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기층 분해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약간 사건을 서술해 두고 싶다. 우선 안라의 사례를 보면 차한기는 大不孫, 九取柔利, 夷吞奚 3명이 기록되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왕의 위치에 있는 한기 내지는 상한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아래에 복수의 하한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기층 내부의 구조는 정치적 신분제로 이행하는 단서를 보여 주는 것은 있지만 동시에 그 신분표시가 상·하의 한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상한기가 차한기에 대해서 초월한 권력을 부여받은 정치적 지위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러한 상한기가 가지는 권한은 여전히 정치적 신분으로 정립된 측면보다도 아시아적 공동체의 수장적인, 족적 유대에 기반한 측면의 모습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라제국이 한기층의 분해라고 하는 형태에 의해 보인 정치사회로의 방향성을 역사적 발전의 한 단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아시아적 정체론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가라제국 내부에 원시사회에서 정치사회로 이행하는 자립적 발전의 단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노우에 히데오의 앞의 책에서도 들고 있지만 『魏志』 韓傳에

其俗少綱紀 國邑雖主帥²⁴⁾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라고 보이는 것처럼 3세기경 중국인의 韓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치적 신분 질서가 없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노우에의 앞의 책에서는 이 한전의 기재와 『일본서기』가 전하는 한기층의 신분제로서 미숙한 측면의 공통성을 지적하는 것에 의해 가라제국의 정체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역으로 전체적으로는 아시아적 공동체 사회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그 중에도 정치적 신분 질서의 맹아가 가라제국의 일부에 한기층의 분해로 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그런데 다음으로 임나한기 상호의 관계, 따라서 가라제국 상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 다시 [A]와 [B] 양 사료와 별표 (4)를 보면 안라와 다라가 그 국왕에 상응하는 한기를 파견하지 않고 대신에 차한기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아마도 안라와 다라 두 나라가 임의로 차한기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국의 한기와 안라·다라의 차한기가 대등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즉 안라의 상한기와 다라의 상한기는 가라의 다른 여러 소국보다도 한 단계 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라고 여겨진다. 이것은 임나에 대해서 흙명 5년 3월 조에 인용된 『백제본기』가

百濟本記云, 以安羅爲父, 以日本府爲本也

24) [역자 주] 원문은 ‘主帥’이다. ‘主帥’의 오키이므로 수정하였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안라가 임나·가라제국의 사이에서 상위의 입장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안라와 다라가 가라제국 가운데서 가지는 이러한 대국의 지위가 다른 한기 등이나 임나일본부보다 상대적으로 한 단계 상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백제에 소집된 임나일본부와 임나한기 등의 집단은 가라제국 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위치를 보유해 나가고 있던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노우에의 앞의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대로(76쪽), 일본부·임나한기 등은 공동으로 외교 문제를 백제와 교섭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가라제국의 공동 임무인 외교 문제에 대한 합의기관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참가하는 임나제국에 대해서 임나한기로 총칭되고 있는 것을 보면²⁵⁾ 본래는 안라와 다라도 포함해서 한기를 출석시켜야할 기관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서기』의 [A]와 [B] 사료에 보이는 대로 한기 스스로가 출석하고 있는 것은 자타, 구차, 줄마 등의 소국이라서 이 합의기관 자체가 가지는 그 정치적 지위는 당초보다 저하된 것은 아닐까라고 여겨진다. 안라와 다라의 차한기 파견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임나 및 일본부의 합의기관의 그 정치적 지위가 저하된 것은 금관국이나 卓淳國 등의 여러 나라가 차례로 신라에 정복된 것과 무관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 합의기관의 임무가 외교를 주요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 생각된다.²⁶⁾

25) 이노우에의 앞의 책에서는 왕과 상급귀족을 총칭해서 한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74쪽). 이 지적을 계승한다.

26) 가라제국은 여러 나라의 위에 서는 정치적 통일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이 곤란했던 기본적 원인은 이노우에 히데오의 「임나제국의 지리적조건」(앞의책, 187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골짜기마다 소국이 분산되어 있었다는 조건 때문에 가라제국이 각각 고립되어 생산 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산의 여러 조건에서 가라제국이 통일체를 가질 필연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교통의 형태와 그것에 포함되는 외교 관계 및 낙동강을 통한 교역 등등이 가

이미 서술한 것처럼 가라제국의 일부에는 정치적 신분제도의 이행이 보이고 있기도 했지만 임나한기 등에 의한 외교 문제 협의기관의 정치적 지위 저하가 신라의 침투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가라제국의 외교권을 독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나라도 가라제국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적으로는 신라에 병합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사이에 이미 앞의 절에서 본 것처럼 하지왕의 책봉과 같이 대국의 권위 아래에 정치적 자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임나의 여러 한기의 통일 기구라고 할 만한 협의기관의 후퇴와 그것을 대신하여 가라제국 전부를 통일시킬 권력의 발생이 없었던 것에 의해 가라제국은 그 종말을 맞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별표(3) 『백제본기』 관련연표

1	繼體 3년 2월	任那의 日本縣邑의 백제인을 본국으로 옮기다.	K
2	6년 4월	(丙寅) 穗積臣押山을 백제에 보내다.	A
3	12월	백제가 임나 4현을 청하다. 押山과 大伴金村이 백제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다.	A
4	7년 6월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五經博士를 보내고 伴跛가 己汶을 빼앗은 것을 고발하다.	A
5	11월	백제에 기문과 帶沙를 내려준다.	B
6	是月	반파가 기문을 요구하다.	B
7	8년 3월	반파가 子吞과 대사에 성을 쌓아 일본에 대비하다.	B
8	9년 2월	백제의 사자가 돌아가다. 物部連을 딸려 보내다.	B
9	是月	物部連이 帶沙江에 도착하다.	B
10	4월	반파가 物部連을 대사로부터 쫓아내다.	B
11	10년 5월	백제가 物部連을 맞이해 위로하다.	B
12	9월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기문의 땅을 내려준 것에 사례하다.	B
13	9월	(戊寅) 백제가 來朝하다.	C
14	21년 6월	(甲午) 近江毛野가 南加羅와 喙己吞을 복건하기 위해	D

라제국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가라제국이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통의 사회적 임무는 외교 문제와 교역이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아마도 임나한기 등의 협의기관의 사회적 임무는 외교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합 방식은 경제적 구조상의 통일을 가져오는 필연성을 낳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출발(磐井의 반란으로 이어진다)하다.	
15	23년 3월	백제가 押山을 통해서 加羅의 多沙津을 청하다.	E
16	是月	다사진을 백제에 내려주다, 가라가 이 때문에 신라와 결탁하여 가라왕이 신라의 왕녀와 통혼하다.	E
17	是月	毛野가 安羅에 도착하다. 백제의 사자를 불러서 임나의 복건을 말하다.	D
18	4월	(戊子) 己能末多干岐가 來朝해서 大伴金村에게 구조를 청하다.	D
19	是月	己能末多干岐를 보내고 毛野에게 명령해서 신라와 백제 두 왕을 소집하다. 두 나라의 국왕이 오지 않다. 신라의 上臣伊叱夫禮智干岐가 金官 외 4촌을 약탈하다.	D
20	24년 9월	임나의 사신이 毛野의 실정을 고발하다.	D
21	10월	毛野를 임나로부터 소환하다.	D
22	是歲	毛野가 大島에서 죽다. 처가 노래 부른다.	D
23	25년 12월	繼體 ²⁷⁾ 가 붕어하다. …… 『백제본기』에 따르면.	F
24	欽明 元年	(乙亥) 천황이 4현을 백제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 金村을 위문하다.	A
25	2년 4월	임나의 旱岐 등을 日本府와 함께 백제에 소집하고, 일본천황의 조서를 백제의 聖明王이 전하다.	G
26	7월	백제가 안라에 사신을 보내 일본부 河内直 등이 신라와 통한 것을 책망하다.	G
27	7월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임나의 政을 上表하다.	G
28	4년 11월	(丁亥) 津守連을 파견하여 백제에 임나의 下韓에 있는 백제의 郡승을 일본부에 부속시키도록 명령하다. 백제가 이것을 거부하다.	G
29	12월	백제왕이 河内直 등을 안라에서 떼어낼 것을 모의하다.	G
30	是月	백제가 任那執事와 日本府執事を 소환하다. 正月에 갈 것을 기약하다.	G
31	5년 正月	백제가 임나집사 등을 소환했지만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이유로 가지 않다.	G
32	是月	백제가 다시 집사 등을 소환했지만 가지 않다.	G
33	2월	백제가 임나에 사신을 파견하여 任那旱岐와 일본부 河内直 등을 책망하다.	G
34	3월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천황에게 임나의 사정을 고발하다.	G
35	10월	백제의 사자가 돌아가다.	G
36	11월	백제가 임나집사와 일본부신을 소환해서 천황의 조서를 전달하다.	G
37	6년 3월	膳臣巴提便을 백제에 파견하다.	G
38	5월	백제의 사자가 來朝하다.	G
39	9월	백제가 임나에 사신을 보내 일본부와 여러 환기에게 뜻의 재물을 보내다.	G

40	是月	백제가 丈六佛像을 만든다.	G
41	11월	膳臣이 돌아오다.	G
42	是歲	고구려에 大亂이 일어나다.	H
43	7년 正月	(丙午) 백제의 使人이 돌아가다.	G
44	2월	(癸未) 백제의 使人이 조공하다.	G
45	是歲	고구려에 大亂이 일어나다.	G
46	9년 正月	백제가 사자를 파견하여 구원군을 요구하다.	G
47	4월	(甲子) 백제가 구원군을 요청하였는데 안라와 일부부가 와서 구원하지 않고 고구려와 통한 것을 고발하다.	G
48	6월	백제에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막을 것을 명령하다.	G
49	壬 7월	백제의 사신이 돌아가다.	G
50	10월	370인을 백제에 보내 得爾卒에 성을 쌓다.	G
51	10년 6월	천황이 延那斯와 麻都가 고구려에 통한 것의 허실을 확인하다.	G
52	11년 2월	(庚寅) 백제에 조서를 내리고 화살 30具를 보내다.	G
53	4월	(庚辰) 백제왕이 고구려의 포로 6口를 천황에게 보내다.	G
54		(乙未) 백제가 고구려의 포로 10口를 보내다.	G
55	12년 3월	백제왕에게 보리 종자 1천斛을 보내다.	G
56	是歲	성명왕이 고구려를 정벌하여 한성 및 6군을 얻다.	G
57	13년 5월	(乙亥) 백제가 안라와 가라 등의 구원군을 요구하다.	G
58	10월	성명왕이 불상을 바치다.	G
59	是歲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다.	G
60	14년 正月	(乙亥)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군을 요구하다.	G
61		(戊寅) 전년 5월의 백제 使人 등이 돌아가다.	G
62	6월	內臣을 백제에 보내서 좋은 말과 활, 화살 등을 내려 주다.	G
63	8월	(丁酉) 백제가 上表하여 안라를 지킬 것을 청하다.	G
64	10월	(己酉) 백제왕 余昌이 고구려를 정벌하다.	G
65	15년 正月	(甲午) 內臣이 구원군 1천인, 배 40척을 백제에 약속하다.	G
66	2월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병을 요구하다.	G
67	3월	백제의 使人이 돌아가다.	G
68	5월	內臣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에 도착하다.	G
69	12월	백제왕과 안라에 있는 倭臣, 임나의 여러 한기 등이 신라와 싸웠다는 보고.	G
70	16년 2월	여창이 왕자 惠를 파견하여 성명왕이 신라에 살해당한 것을 보고하다.	G
71	8월	여창이 출가하려 하였으나 신하들이 이를 말리다.	G
72	17년 正月	왕자 혜가 돌아가다.	G
73	18년 3월	(庚子) 여창이 즉위하여 威德王이 되다.	G
74	23년 正月	신라가 任那官家를 멸망시키다.	G

별표(4)

欽明 2년		欽明 5년	
安羅	次早岐 夷吞奚 大不孫 久須柔利	安羅	下早岐
加羅	上首位 古殿奚	加羅	上首位
卒麻	早岐	卒麻	君
散半奚	早岐兒	散半奚	君兒
多羅	下早岐 夷他	多羅	二首位
斯二岐	早岐兒	斯二岐	君
子他	早岐	子他	早岐
任那日本府		久差	早岐

V. 남은 과제

이상의 검토 결과 6세기 전반의 가라제국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6세기 초두의 가라제국에서는 한기(상한기)-하한기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하 신분 관계의 초보적 형태가 형성되어 정치사회로 이행하는 방향성이 보인다. 적어도 『위지』 한전에 보이는 것 같은 원초적인(primitive) 형태로부터 탈피하는 중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가라제국은 그들의 위에 받들어 모실 통일체를 가지지 못하고 외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합의체인 임나일본부와 임나의 여러 한기로 이루어진 조직도 신라와 백제의 개입과 침투 아래 그 정치적 지위가 약화된 점이다. 따라서 안라와 다라 등 정치사회로 이행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한기층을 신분으로서 채택하고 있던 것 같은 여러 나라는 합의체로의 출석도 한기를 대신해서 차한기가 해서 합의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위를 얻었다. 2절에서 본 것처럼 大伽耶와 같이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상황에 상응한 외교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거나, 안라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하지왕과 같이 남제에 조공하는 것에 의해 책봉을 받아 보국장군이 되는 것에 의해

27) [역자 주] 원문은 ‘紺體’이다. ‘繼體’의 오키이므로 수정하였다.

외교상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등, 여러 소국 각각에서 그 정치적 자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라제국 각각의 힘의 한계는 신라와 백제의 힘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것, 또 합의체가 그 때문에 점점 정치적 지위가 저하된 것에 의해 가라제국의 단결을 이완시켰고 그 때문에 신라의 침투를 오히려 용이하게 해서 결국은 병합되게 되었다.

이상이 가라제국의 내적 발전과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가라제국에도 정치사회로의 초보적 이행이 내재해 있어서 결코 단순히 정체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제국이 신라에 병합된 것은 가라제국 사이에서의 통일체 형성의 길이 여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다.

다만 여기서 일본사의 입장에서 말해도, 또한 가라제국 역사의 입장에서 말해도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가라제국의 합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준비가 이 논문에는 없지만 다음으로 약간의 지견을 서술해두고 싶다.

우선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는 임나일본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본래는 왜부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백제본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히데오씨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며 그 대략은 앞 절에서 서술한 바이다. 다만 그 성립시점은 推古朝가 아니라 7세기 말이나 8세기 초두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일본이라고 하는 표기와 천황이라는 말이 『백제본기』 원래의 글에 보이는 것에 있다. 천황은 계체 25년 조(『일본서기』)에 보이는 分注의 『백제본기』 인용문에 보인다. 일본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은 곳에 있고 그 외에 흥명 5년 3월 조(『일본서기』)에 보이는 분주의 『백제본기』 인용문에는 일본부가 보인다. 이들 사례로 보아 우선 『백제본기』 원래의 글에 일본부나 천황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두 표현 모두 7세기

말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²⁸⁾ 따라서 『백제본기』의 최종적 편찬은 7세기 말 이후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남은 문제는 기노시타 레이진(木下禮仁)의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사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조선학보』 21·22 합병호)²⁹⁾에서 제시한 『백제본기』의 글자 사용법을 통해 그것이 추고조에 성립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나는 이노우에 히데오의 앞의 책이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백제본기』 자체가 편집물이기 때문에 『백제본기』 원사료의 성문화 시기가 추고조라고 생각하면 글자 사용법의 모순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미시나, 이노우에, 기노시타씨는 모두 『백제본기』가 추고조에 성립했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³⁰⁾ 그 최종적인 편찬 시기는 7세기 말로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원사료에 대해서 그 편찬 시점에 일본 및 천황이라는 용어를 당시의 일본의 상황에 합쳐서 『백제본기』의 편자가 바꿔 썼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이 바꿔 쓰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계체 7년

6월 조(『일본서기』)에 보이는

28) 천황호의 성립에 대해서는 도노 하루유키(東野治之)의 「천황호의 성립연대에 대하여(天皇號の成立年代について)」(『續日本記研究』144·145호 합병)에서는 淨御原令에서 시작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계승하고 싶다. 한편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에 대해서는 大化 2년 2월의 조서(『일본서기』)에 “明神御宇日本倭根子天皇”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大化 때부터 성립했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천황호와 마찬가지로 7세기 말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29) [역자 주] 木下禮仁, 「日本書紀にみえる百濟史料の史的價値について」, 『朝鮮學報』 21·22, 1961.

30) 미시나 쇼에이의 『일본서기 조선 관계 기사 고증』 상권 134쪽, 이노우에 히데오의 『입나일본부와 왜』 70쪽, 기노시타 레이진의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사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조선학보 21·22 합병호)의 셋은 『백제본기』의 성립 시기를 추고조 때라고 하고 있다. 사카모토 다로(坂本太郎)의 『육국사』(吉川弘文館 간행)에서는 백제 멸망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백제인의 편집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편집 시기에 대해서 이 논문은 사카모토의 주장에 가깝지만 기노시타 논문의 글자 사용법으로 보아 『백제본기』의 원사료 작성이 추고조의 일본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은 잘라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문과 같이 추론했다.

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

와 같은 기재 중의 委=倭는 바뀌 쓰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으로부터 역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사료에서는 왜였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 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임나일본부는 임나의 왜부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倭, 특히 여기서는 6세기 전반의 왜가 야마토 정권을 가리키는지의 여부, 이것이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논문의 과제에 입각해 말하면 왜부의 존재가 가라제국의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고 그것에 긍정적과 부정적 어느 쪽의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실은 이 두 가지를 해명하는 것이 임나일본부, 즉 왜부라고 말해지는 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요점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이 논문은 아무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점을 남겨진 과제로 하면서, 가라제국 쪽에서 본 바의 6세기 전반 가라제국의 사적 발전 양상을 일부 취급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 加羅諸國, 야마토 조정, 임나일본부, 日本書紀, 가락국기,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記

[투고일: 2019.10.20, 게재확정일: 2019.11.30]

[역자 후기]

기토 기요아키(鬼頭清明)는 이 논문에서 문헌사료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식을 견지한 상태에서 가라제국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역사적 발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그 시도로서 이 논문을 서술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문헌 사료를 모두 검토하면서도 상호 독립시켜 각각의 사료를 하나의 질 안에서 따로 따로 검토하는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격이 다른 복수계통의 사료를 ‘합리적’으로 조리를 맞춰 해석하는 연구 태도가 가지는 위험성을 적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 방법에 앞으로의 연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가라제국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조하면서도 479년 남제에 조공한 가라국을 안라국으로 파악할 때는 같은 시기에 왜왕이 남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있는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근거로 왜와의 관계 하에 가라국이 남제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왜와 가라제국의 상호 영향력 관계의 부등호를 왜 쪽으로 치우치게 해석하는 일본학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점 역시 가야사의 내적 발전 과정에 구체적으로 접근한 이 논문의 선구적 성과를 계승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